

##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 탐색

한 지 숙<sup>1)</sup>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개인내적 변인, 즉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변인들의 순차적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경기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임의표집하였고 3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02명의 아동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본 연구목적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2명을 제외한 총 200부의 자료만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단순회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우선 행복감은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성격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변인 중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에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감의 전체 설명력은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저소득가정, 행복감, 개인내적 변인, 자기효능감

---

1)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외래강사 (E-mail : han21queen@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며 행복에 가치를 두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한 보편적 현상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성, 인종, 경제적 수준, 연령 등에 상관없이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개념이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적절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존재가 추구하는 목적의 전부이자 궁극’이라고 정의하였다(Lyubomirsky, 2007). 행복에 대한 또 다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행복이란 긍정적으로 더없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복감에 관한 국내 연구(박효서, 2000; 이정화, 2005)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상태 및 생활에 대한 만족감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Diener와 Suh(1997)의 정의에서는 행복이 객관적이고 외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개인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행복감이 최근에 관심을 끄는데는 개인의 적응과 삶의 질에 행복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선행연구(조유진, 한지숙, 2010)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이 개인의 적응과 관련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연구결과들은 인간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창의적이고 지적활동이 활발해져 개인의 적응능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행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Rojas, 2006)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부부관계, 자녀의 성취 및 적응, 대인관계, 사회적 지위 및 교육수준, 소득 등 다양한 요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김명소, 한영석, 2006)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성격, 또래관계 등의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주리(2009)는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또래요인 등을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요인에 성별, 외모, 비행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사춘기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외모와 비행이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정자, 이영희, 심인옥 및 최윤정(2005)의 질적 연구에서도 외모가 아동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공영길(2009) 역시 외모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구(Holder & Coleman, 2008)의 경우에도 신체적 매력이 아동의 행복감을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유기체,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등 생태체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허승연(2009)의 연구에서도 외모가 유기체 변인 중

하나로 선정되었는 바, 외모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허승연(2009)의 연구에서는 외모 이외에도 성별, 감사, 낙관성, 자기효능감, 유머, 건강 등을 유기체 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유기체 변인이 다른 변인에 비해 행복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면서 행복을 결정하는데 개인의 내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외모 변인 이외에도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와 전망을 하는 낙관주의가 행복을 예측해주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임이 보고되고(원두리, 김교현, 2006; Diener, Suh, Lucas, & Smith, 1999)이고 성격 등의 심리학적 요인도 주관적 안녕감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Diener, 2000). 성격이란 Allport에 의하면 ‘정말로 그 사람인 것(what a man really is)’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개인을 타인과 구별해주는 특징적 사고, 정서, 행동을 포함한 독특한 행동유형(Phares, 1984)이다. 성격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성격에는 개인차가 있다. 이 개인차를 반영하는 차원을 특질이라 말하고 학자들마다 성격의 기본이 되는 특질의 종류와 수가 서로 다르다. 아이젠크(Eysenck)는 정신병적 경향, 외향성, 신경증 경향을 성격의 3가지 주요 요인으로 꼽았고 코스타(Costa)와 맥크레(McCrae)를 포함한 많은 다른 연구자들은 정서안정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동조성, 및 성실성 등 5대 성격특성요인을, 융(jung)은 외향성과 내향성의 2가지 유형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성격을 구분짓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차원(김연화, 강문희, 2008)인 내·외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내향성(Introversion)이란 인간의 본능적 정신에너지인 리비도(Libido)가 내부로 향하며 내부에 초점을 맞춰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외향성(Extroversion)은 리비도(Libido)가 외부로 향하며 외부세계에 가치를 두어 자신의 주관성 보다는 객관적 상황을 보다 중요시한다. 이러한 내·외향성은 환경 뿐 아니라 유전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내·외향성과 관련하여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개인도 완전히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지는 않으며 즉 정도의 문제로 어느 쪽의 경향이 다소 우세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이 어떤 때는 외향적이고 또 다른 때에는 내향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성격 중에서는 외향적 성격이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연구가 항상 일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내향적 성향의 사람이 오히려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인다고 밝힌 연구(Hills & Argyle, 2001)도 있다. 이외에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신념이나 기대를 의미(Bandura, 1997)하는 자기효능감 변인이 여러 선행연구들(구재선, 2005; 권영주, 박영신, 김의철, 2007)을 통해 행복을 예측해주는 주요한 변인임이 드러나고 있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이 직·간접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소연희, 2007; Karademas, 2006),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며 자기존중감이 높고 긍정적인 안녕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Bisschop, Knegsman, Beekman, & Deeg, 2004). 특히 자기효능감 변인에 대해 Bandura(1997)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모,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내적인 속성에 주목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행복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학문적 연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감 연구는 주로 성인에 분포되어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연구는 아주 제한적이다(정계숙, 최은아, 강인설, 2008).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의사소통 유형, 성격, 사회적 지지 등과 행복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연화, 2005; 허지영, 2008)나 심리적 특성과 행복과의 상관연구(우진희, 2007), 행복 측정 도구 개발(이정미, 이양희, 2005) 등으로 대부분 일반아동에 국한되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소득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고통이 많으며 이는 경제활동 당사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특히 아동에게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민한 성장기에 있는 아동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다. 즉 기본적으로 저소득가정에서 아동은 의식주와 의료서비스 등 생존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총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

활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삶의 만족도가 낮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발달상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이나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은 일하는 부모의 부재로 방임되거나 사회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성장하고 비행청소년으로 자랄 위험성이 높고(배화옥, 2010), 자존감 저하나 소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문제들이 아동의 학업중단, 자살, 비행 등의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적응을 잘하는 아동을 볼 수 있다. 이는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변인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좀 더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강현아, 2010)에서도 긍정적인 생각, 의지와 같은 특성을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절한 발달과 역량을 성취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낮은 소득과 같은 객관적 상황이 반드시 주관적인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Diener와 Suh(1997)는 행복이 객관적이고

외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지선, 김민영과 서은국(2004)은 행복의 정의를 개인 내적인 긍정적 정서 상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행복감은 객관적 상황을 바라보는 개인의 긍정적 시각이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도 행복감이 객관적이고 외적인 조건보다는 외모나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내적인 특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감에 아동의 개인내적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려는 시도는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서비스 이외에 비경제적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복지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개인 내적인 변인, 즉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의 변인이 아동의 행복감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내적 변인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내적 변인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순차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18개 지역아동센터를 임의표집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선택한 이유는 센터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보호와 교육, 급식지원 등을 받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 한부모 가정 아동, 방임·방치되는 아동, 맞벌이 가정 아동 등 가정내에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행복감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저학년 아동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 아동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가 38.5%, 여아가 61.5%로 여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 41.0%, 5학년 31.0%, 6학년 28.0%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친부모가 함

표 1.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200)

| 변인         | 구분         | 빈도(%)     |
|------------|------------|-----------|
| 성별         | 남          | 77(38.5)  |
|            | 여          | 123(61.5) |
| 학년         | 4학년        | 82(41.0)  |
|            | 5학년        | 62(31.0)  |
|            | 6학년        | 56(28.0)  |
| 가족<br>유형   | 친부모+자녀     | 90(45.0)  |
|            | 모·부자가정     | 78(39.0)  |
|            | 재혼(계부)가정   | 3( 1.5)   |
|            | 재혼(계모)가정   | 8( 4.0)   |
|            | 조손가정       | 10( 5.0)  |
|            | 기타         | 11( 5.5)  |
| 부의<br>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2(26.0)  |
|            | 전문대학 졸업    | 4( 2.0)   |
|            | 대학교 졸업     | 43(21.5)  |
|            | 대학원 졸업     | 5( 2.5)   |
|            | 비해당        | 59(29.5)  |
|            | 무응답        | 37(18.5)  |
| 모의<br>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 61(30.5)  |
|            | 전문대학 졸업    | 3( 1.5)   |
|            | 대학교 졸업     | 34(17.0)  |
|            | 대학원 졸업     | 4( 2.0)   |
|            | 비해당        | 61(30.5)  |
|            | 무응답        | 37(18.5)  |

비해당: 부모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

무응답: 부모가 현재 함께 거주함에도 응답하지 않음

께 살고 있는 아동이 45.0%, 한쪽 부모와 살거나 조부모 또는 친척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이 49.5%로 조사대상 아동의 약 50% 정도가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부모가 부재함으로써 해체가정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부 52명(26%), 모 61명(30.5%)이었고, 전문대학 이상이 부 53명(26%), 모 41명(20.5%)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어머니의 학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0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문항을 수정·보완 후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3주 동안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 및 기관은 임의표집하였고 사전에 센터장과의 접촉을 통해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협조를 구하였다. 협조에 동의한 센터에 아동 명수를 파악하여 230부 설문지를 보냈으며, 우편으로 회수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중 약 88%에 해당하는 20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2부의 설문지는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200부만 분석하였다.

## 3. 측정도구

### 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명환(1998)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초등학

생에 맞게 수정·보완한 김연화(2005)의 척도 중 인지적 행복감에 해당하는 20문항을 활용하였다. 양명환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W-aterman(1993)의 PEAQ(Personally Ex-pressive Activities Questionnaire)와 Ryff(1989)의 행복감 척도(The Scale of Psychological Well-being)를 참고로 만들어진 것으로 Cronbach  $\alpha$  계수는 .93이다. 한편 인지적 행복감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갖는 총체적 만족감, 즉 생활만족도를 의미한다. 인지적 행복감의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집이나 학교생활에서 항상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모든 활동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나는 항상 모든 일에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 항상 사이 좋게 지낸다’, ‘나는 항상 모든 일에 명확한 목표를 가진다’ 등 자기수용, 생활목표,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행복감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다소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중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  $\alpha$ 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 척도는 허승연(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sup>1)</sup>. 3문항

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의 외모가 만족스럽다’, ‘나는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외모를 갖추고 있다’,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호감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연구(허승연, 2009)에서는 Cronbach  $\alpha$ 가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가 .91로 나타났다.

### 낙관주의

낙관주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언제나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는 김민정(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6문항의 낙관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의 연구(김민정, 2006)에서 Cronbach  $\alpha$ 는 .67이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59로 나타났다. 낙관주의 문항을 살펴보면,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는 보통 최선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나는 항상 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걸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나에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에 이르기까지 5점 Likert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허승연(2009)이 사용한 외모만족도 척도는 청소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의 타당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조사와 함께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 관련 전문가 2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음.

### 성격

아동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아이젠크의 성격차원검사 중 여영진(2003)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에게 측정가능하도록 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 외향성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에 대해 각각 ‘예’나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향성과 외향성을 구분하기 위해 점수의 평균보다 높은 아동은 외향성, 낮은 아동은 내향성으로 구분하였다. 문항 중 2, 10, 15번은 역채점 문항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Maddux와 Scherer(1982)의 척도를 김현숙(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1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과제를 성취하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성취효능감(8 문항)과 사람을 사귀는 자신감인 사회적 효능감(5문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부정적 문항인 4, 8, 10번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Cronbach  $\alpha$ 가 .87로 나타났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대상 아동 및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으며,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과 행복감간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내적 변인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행복감에 미치는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 변인간의 공변량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 바,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미치는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의 우위를 살펴보고 독립변인의 높은 상관을 통제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행복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행복감은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 $r=.49 \sim .71, p<.001$ )을 보인 반면, 성격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43, p<.001$ ). 즉 행복감은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과 상관이 있으며, 특히 성격의 경우 내향적인 성격이 행복감과 더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과 행복감간의 상관관계

|       | 행복감     | 외모만족도   | 낙관주의    | 성격      | 자기효능감   |
|-------|---------|---------|---------|---------|---------|
| 행복감   | 1.00    | .49***  | .58***  | -.43*** | .71***  |
| 외모만족도 | .49***  | 1.00    | .40***  | -.34*** | .54***  |
| 낙관주의  | .58***  | .40***  | 1.00    | -.40    | .63***  |
| 성격    | -.43*** | -.34*** | -.40*** | 1.00*** | -.42*** |
| 자기효능감 | .71***  | .54     | .63     | -.42    | 1.00    |

\*\*\* $p < .001$ 

표 3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외모만족도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복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외모만족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r^2 = .24$ ,  $F = 61.36$ ,  $p < .001$ ), 외모만족도를 예측해주는 행복감의 전체 설명력은 24%로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낙관주의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 4에서 살펴본 결과, 낙관주의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r^2 = .34$ ,  $F =$

99.25,  $p < .001$ ). 행복감을 예측해주는 낙관주의의 전체 설명력은 34%로 나타났고 낙관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격 역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r^2 = .18$ ,  $F = 44.18$ ,  $p < .001$ ). 행복감을 예측해주는 성격의 전체 설명력은 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향적 성격일수록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6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변인 중 자기효능감의 영향에 대

표 3. 외모만족도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준거변인 | 예측변인  | $b$ | $\beta$ | $t$     | $r^2$ | $F$      |
|------|-------|-----|---------|---------|-------|----------|
| 행복감  | 외모만족도 | .43 | .49     | 7.83*** | .24   | 61.36*** |

\*\*\* $p < .001$ 

표 4. 낙관주의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준거변인 | 예측변인 | $b$ | $\beta$ | $t$     | $r^2$ | $F$      |
|------|------|-----|---------|---------|-------|----------|
| 행복감  | 낙관주의 | .62 | .58     | 9.96*** | .34   | 99.25*** |

\*\*\* $p < .001$

표 5. 성격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준거변인 | 예측변인 | <i>b</i> | $\beta$ | <i>t</i> | $r^2$ | <i>F</i> |
|------|------|----------|---------|----------|-------|----------|
| 행복감  | 성격   | -1.34    | -.43    | -6.65*** | .18   | 44.18*** |

표 6. 자기효능감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준거변인 | 예측변인  | <i>b</i> | $\beta$ | <i>t</i> | $r^2$ | <i>F</i>  |
|------|-------|----------|---------|----------|-------|-----------|
| 행복감  | 자기효능감 | .73      | .71     | 14.29*** | .51   | 204.09*** |

해 살펴본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r^2 = .51$ ,  $F=204.09$ ,  $p<.001$ ). 즉 행복감을 예측해주는 자기효능감의 전체설명력은 51%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도 더불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순차적 영향력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의 우위를 살펴보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외모만족도, 낙관

주의, 성격, 자기효능감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변인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예측변인이 행복감을 예측하는 정도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째 행복감을 예측해주는 변인 중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성격이 행복감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에 대해 52%로 가장 우선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elta R^2 = .52$ ,  $\Delta F = 52.14$ ,  $p < .001$ ). 다음으로 낙관주의에 의해 행복감이 설명되는 정도는 3%( $\Delta R^2 = .03$ ,  $\Delta F = 9.77$ ,  $p < .01$ )를 나타냈으며,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의 영향을 제외한 성격의 추가 설명력은 1%( $\Delta R^2 = .01$ ,  $\Delta F = 4.25$ ,  $p < .0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의

표 7.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N=200)

| 준거변인 | 예측변인  | $\beta$ | <i>t</i> | $\Delta R^2$ | $\Delta F$ | $R^2$ | <i>F</i>  |
|------|-------|---------|----------|--------------|------------|-------|-----------|
| 행복감  | 자기효능감 | .49     | 7.22***  | .52          | 52.14***   | .52   | 204.96*** |
|      | 낙관주의  | .20     | 3.13**   | .03          | 9.77**     | .55   | 13.69***  |
|      | 성격    | -.11    | -2.06*   | .01          | 4.25*      | .56   | 5.51*     |
|      | 외모만족도 | .11     | 1.97     | .01          | 3.87       | .57   | 3.87      |

\* $p < .05$ , \*\*  $p < .01$ , \*\*\* $p < .001$

추가설명력도 1%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감은 여러 다양한 개인내적 변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에 의해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개입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방안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표 2를 참조해볼 때 낙관주의와 행복감간의 상관관계가 .58로 높은 반면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3%로 자기효능감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의 상관인 .63으로 두변인간의 공변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투입된 변인들의 최종적인 설명력은 57%로 행복감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 즉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을 탐색함으로써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우선 저소득가정의 경우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많이 받으며 이로 인해 가족구성원,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에게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문제들로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업중단, 비

행 등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저소득가정 아동이 문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유사한 상황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잘 적응해나가는 아동이 있음을 볼 때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있을 거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행복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개인의 적응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행복감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적응 뿐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겪는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도록 도와주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본 연구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데는 저소득가정 아동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방치될 경우 범죄, 빈곤 등의 사회문제로 연결되어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힘으로써 신속한 개입을 통해 장차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연구(Diener & Seligman, 2004)에서도 행복에 있어서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 상태가 더 큰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개인내적 변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우선 외모만족도가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만족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외모만

족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고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공영길, 2009;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와도 일치한다.

낙관주의 역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낙관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낙관성이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결과(김민정, 2006; Chang, Sanna, & Yang, 2003)와 일치를 보인다. 또 다른 연구결과도 비관적인 사람들은 낙관적인 사람들보다 자신감과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 더 적고 행복감을 더 적게 느끼며(Helton, Dember, Warm, & Matthews, 2000)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인 불편감을 덜 경험하고 좀 더 유연한 적응성을 보인다(Brisette, Scheier, & Carver, 2002)고 밝혀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낙관주의와 행복감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 행복감과 낙관주의의 상관이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에 대한 낙관주의의 영향력이 자기효능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낙관주의와 자기효능감의 공변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격의 경우에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성격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격이 내향적일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성격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Diener, 2000).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과 안정되고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안정성 등을 통해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인다고 밝힌 결과(Hills & Argyle, 2001)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앞선 다른 많은 연구와는 상반된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성격 중에서도 특히 외향적 성격이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Klein, 1993; Lu, 1995) 있고 높은 외향성의 성격차원과 주관적 안녕감 간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chimmack, Radhakrishnan, Oishi, Dzokoto, & Ahadi, 2002). 뿐만 아니라 성격의 외향적 성향이 20년 후 주관적 안녕감을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져(Fujita, 1991) 외향적 성격의 영향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선행연구들은 내·외향성의 어떤 특정의 성격 성향과 행복감간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내·외향의 성격특성은 많은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인간의 성격특성은 내·외향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황에 따라 유형이 다소 두드러질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김연화, 강문희, 2008)는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추가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자기효능감 변인도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학습자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로 자기효능감을 들고 있으며(Karademas, 2006),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고 긍정적인 안녕감을 가진다고 밝혀(Bisschop, Kneegsman, Beekman, & Deeg, 2004)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개인내적 변인인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순차적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에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사람을 사귀는데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행복,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이 있다(Caprara, Steca, Gerbino, Paciello, & Vecchino, 2006)고 밝혀진 것처럼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 심리변인(박영신, 김의철, 2011)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을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 변인을 배제할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볼 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아동으로 하여금

성공의 경험을 자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의 근원이 되는 성공적 경험은 가장 영향력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높인다. 따라서 가정, 학교, 또는 기관에서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성공적 수행의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성공적인 수행의 경험은 포용적 지도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아동과 친밀감과 신뢰감을 쌓고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을 파악한다면 성공적 경험을 갖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은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 부모, 또래 등에 의해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언어적 설득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공한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자신도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는 신념을 고양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가정의 아동은 빈곤으로 인해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잦은 성취경험, 모델을 통한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성취경험을 통해 얻은 자기효능감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자기신념으로써 저소득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내부적 힘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원희정, 2006). 또한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인으로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경험은 가족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Bandura, 1982) 그 중에서도 부모는 일차적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부모에 의해 성공경험을 많이 가진 아동이 자기효능감도 높다는 것은 또 다른 연구(주순남, 2002)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기술 등에 관한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모 및 가족상담 등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현아 (2010). 시설 퇴소청소년의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7(2), 155-180.
- 공영길 (2009). 외모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80.
- 구재선 (2005).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토착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영주, 박영신, 김의철 (2007). 한국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연구: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민정 (2006).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 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화 (2005).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화, 강문희 (2008).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6), 35-54.
- 김현숙 (1997).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 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2011). 중년기 성인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1), 65-108.
- 박효서 (2000). 자기위로능력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배화옥 (2010). 빈곤아동 현황과 주요특성. 한국아동복지학회 2010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소연희 (2007). 학습자 동기 특성 변인들이 고  
등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교육심  
리연구*, 21(4), 1007-1028.
- 양명환 (1998). 신체활동과 심리적 행복감: 인  
지적 정서 상태 측정치 개발. *한국스포츠  
심리학회지*, 9(2), 298-304.
- 여영진 (2003). 아동의 성격 특성 및 사회적 지  
지 지각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숙  
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진희 (2007). 초등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관한  
연구: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두리, 김교현 (2006). 심리적 웰빙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들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25-145.
- 원희정 (2006).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숙명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 이양희 (2005).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121-137.
- 이정화 (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 이주리 (2009). Data Mining을 이용한 초등학생  
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  
요인 탐색. *아동학회지*, 30(1), 11-25.
- 이지선, 김민영, 서은국 (2004). 한국인의 행복  
과 복: 유사점과 차이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15-125.
- 정계숙, 최은아, 강인설 (2008). 아동의 행복  
상황 및 판단에 대한 조사 연구: 문화적  
특수성 접근. *아동학회지*, 29(6), 207- 223.
- 조유진, 한지숙 (2010).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  
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행  
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  
리*, 14(4), 541-562.
- 주순남 (2002).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창의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경자, 이영희, 심인옥, 최윤정 (2005).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영역과 속성들. *아동간호  
학회지*, 11(2), 167-178.
- 허승연 (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허지영 (2008). 초등학생의 행복감과 학교생활적  
응과의 관계 연구: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82).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 -tive Theory*.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 -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isschop, M. I., Knegsman, D. M. W., Beekman,  
A. T. F., & Deeg, D. J. H. (2004). "Chronic  
diseases and depression: The modifying role of  
psychological resourc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9, 721-733.
- Brissette, I., Scheier, M. F., & Carver, C.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2-111.
- Caprara, G. V., Steca, p., Gerbino, M., Paciello, M., Vecchino, G. (2006). Looking for adolescents'well-being: Self 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positive thinking and happiness. *Epidemiologia e Psichiatria Sociale*. 15, 30-43.
- Chang, E. C., Sanna, L. J., & Yang, K. M. (2003). “Optimism and pessimism as partially independent constructs: relations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 433-440.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Diener, E., & Seligman, M. E. P.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2), 1-31.
- Diener, E., & Suh, E. N.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Psychology*, 69(1), 130-141.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 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Fujita, F. (1991).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extraversion, euroticis-m,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1), 70-95.
- Helton, W. S., Dember, W. N., Warm, J. S., & Matthews, G. (2000). “Optimism, pessimism, and false failure feedback: Effect on vigilance performance.” *Current Psychology* 18, 311-322.
- Hills, p. & Argyle, M. (2001). “Happiness, introversion-extroversion and happy introver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0, 595-608.
- Holder, M. D., & Coleman, B. (2008). The contribution of temperament, popularity, and physical appearance to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2), 279-302.
- Karademas, E. C. (2006).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optim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0, 1281-1290.
- Klein, P. (1993).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London: Routledge.
- Lu, L.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 Taiw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 351-357.
- Lyubomirsky, S. (2008).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오혜경(역). 지식노마드. (원본발간일, 2007).
- Maddux, J. E., & Scherer, M. (1982). “The self efficacy scale: construction & validation.”

- Psychological Report* 51, 663-667.
- Phares, E. J. (1984). *Introduction to personality*.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 Rojas, M. (2006).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in domains of life: Is it a simple relationship?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4), 309-323.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immack, U., Radhakrishnan, P., Oishi, S., Dzokoto, V., & Ahadi, S. (2002). "Culture,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tegrating process model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582-593.
- Waterman, A. S. (1993).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 (eudomania)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78-691.

1 차원고접수 : 2011. 07. 09.  
수정원고접수 : 2011. 08. 14.  
최종게재결정 : 2011. 09. 01.

## An Analysis of Individual Variables Affecting Levels of Happiness in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Han, Ji-Sook

Division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dividual variables, self-satisfaction regarding appearance, optimism, personality and self-efficacy on the levels of child happiness in low income famili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202 school-age children from the 4th to 6th grade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local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The researcher collected questionnaires for three weeks in June 2010. The data gathered from 20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simple regression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dicated that levels of happin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satisfaction regarding appearance, optimism and self-efficacy an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rsonality. Secondly, as a result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individual variables, self-satisfaction regarding appearance, optimism, personality and self-efficacy was observed to impact upon the happiness levels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The study also confirmed that the variable of self-efficacy had the greatest impact upon the happiness levels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Key words* : low income families, happiness, individual variables, self-efficacy.